

의문문의 특수성에 대하여

—경상도 지역어를 통하여—

黃 炳 淳

<目 次>

I. 머리 말

III. 부가 의문(tag-question)

II. 의문사의 쓰임

IV. 맺는 말

I. 머리 말

方言이란 공통어와의 관련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방언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위해선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¹⁾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경상도 지역어가 지닌 특수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의문법이 지닌 일반성의 문제에 보다 특수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경상도 지역어의 의문법에 관해서는 최근 몇 편의 논지에서 논의된 바 있다.²⁾ 본고에서는 경상도 지역어의 의문법 가운데 의문사에 의한 의문법을 논의하면서 의문사의 용법을 찾아보고, 이 지역어의 특수성이기도 한 부가 의문(tag-question)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논의되는 언어현상은 이 지역의 일상생활이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더

1) 최경옥(1980) p. 35 참조.

2) 실제로는 경상북도 지역어를 통한 연구이다. 경상남도 지역어도 경상북도 지역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하고 경상도 지역어란 용어를 사용했다. 본고에서 논의되는 언어는 필자가 평소에 갖고 있는 경험과 한 차례의 현지조사이 위했다. 조사대상자는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그 지역의 순수화자(native speaker)로 생각되는 30세를 전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부가하고 싶은 것은 조사하기 전의 필자의 견해와 실제조사를 통한 결과가 거의 일치했다는 점이다.

3) 천시권(1975), 최명옥(1976, 1980), 강신항(1978), 서정복(1979) 등이 있다.

한다. 위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화용론적 고찰이나 화자가 발화내용의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이 지역어를 이해하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 지역 의문문의 종결어미가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용언어간 뒤에서는 ‘노’와 ‘나’로, 체언 및 용언의 명사형 뒤에서는 ‘고’와 ‘가’로 상보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밝혀 졌다.⁴⁾ 그런데, 그 가운데 의문사를 가진 구문에 있어서의 의문사 후치현상은 또 다른 특색을 드러낸다.

1) a 가나, 언제?

b *가노, 언제?

예문 1a)는 화자가 자문으로, ‘가지 않는다’는 화자의 판단이 선행된 경우에 진술하는 표현인데 이는 1 b)와 같이 종결어미 ‘노’를 취한 문에선 의문사가 후치되면 비문이 되는 점과 대조적이다.

2) a. 가노, 왜?

b. 가노, 뭐?

그런가 하면, 2)에서와 같이 의문사가 ‘왜’나 ‘뭐’인 경우에는 1 b)와 같은 형태의 문이 가능하다.

3) a. *간다, 언제?

b. *간다, 어디?

c. 간다, 왜?

d. 간다, 뭐?

2)가 가능함은 3 c)나 3 d)가 가능함과 어떤 관계를 가진 듯한다. 그리고 3 c)나 3 d)와 같은 ‘서술문+의문사’에 의한 의문형식의 문은 4)와도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4) a. 간다, 아이가?

b. 간다. 그자?

이 지역어에는 3)이나 5)와는 좀 다른 듯한 5)의 경우도 있다.

5) 아있나, 철수 갔데이.

4) 최명옥(1976) 참조.

본고에서는 이상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주력한다.

II. 의문사의 쓰임

의문사란 의문문에 쓰이는 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의문사가 서술문에 쓰이는 경우에는 의문사가 의문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 하겠다. 경상도 지역에는, 의문사가 의문사의 기능을 갖고 사용될 경우, 종결어미가 용언어간 뒤에서 ‘노’로 실현된다.

- 6) a. 누가⁵⁾ 가노?
- b. 언제⁶⁾ 가노?
- c. 어디⁷⁾ 가노?
- d. 뭐⁸⁾ 하노?
- e. 우에⁹⁾ 하노?
- f. 왜¹⁰⁾ 하노?
- g. 얼마¹¹⁾ 하노?

6)의 각 문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뜻이 된다.¹²⁾

6 a)는, 초점(focus)이 의문사에 있는 경우, 누군가가 간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고 화자가 청자에게 “X가 간다”와 같은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의 표현이다. 반면, 초점이 ‘가노’에 있는 경우는 화자가 “아무도 가지 않겠다”라는 주관적인 판단¹³⁾ 아래 사용하는 반문적 표현인데, 이 경우는 청자에게 “X가 간다”와 같은 대답이 요구되지 않는다.

5) 6), 7), 8), 9), 10), 11)의 의문사 언제, 어디, 뭐, 우에, 왜, 얼마는 지역에 따라서 언제, 어데, 모오, 우제, 와, 운매 등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이들 의문사는 지역적으로 통일된 현상을 보이지 않고 혼용되고 있으므로, 이하의 논의에서는 이 지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언제, 어디, 뭐, 우에, 왜, 얼마라는 어휘를 사용하기로 한다. 최명옥(1980, p.76)에서는 ‘언제’와 ‘운제’ 그리고 ‘버어’와 ‘모오’의 관계가 반촌과 민촌의 어휘관계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그곳과 같이 사회적 신분제도가 엄격하게 구별되어 온 지역에서는 그와 같은 구분이 가능하나, 경상도 지역어를 소수의 하위방언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분이 모호해진다.

12) 뜻의 차이가 나타나는 관계는 이 지역에서 성조에 의해 잘 드러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성조에 관한 것은 언급하지 않는다.

13) 화자의 판단이 객관성을 지니면, 판단내용은 전체의 내용이 된다. 그런데, 화자의 판단이 주관적인 판단이나 전체냐의 문제는 discourse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6b)는, 의문사에 촛점이 있을 경우, 간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고, 화자가 청자에게 “X 일에 간다”와 같은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반면, ‘가노’에 촛점이 있는 경우는 화자가 ‘이러다가 가지 못하겠다’와는 주관적인 판단 아래 사용하는 반문으로 “X 일에 간다”와 같은 대답이 요구되지 않는다.

6c)는, 의문사에 촛점이 있을 경우, 간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고 화자가 청자에게 “X 에 간다”와 같은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반면, ‘가노’에 촛점이 있는 경우는 화자가 “아무 데도 못하겠다”라는 주관적인 판단 아래 사용하는 반문으로 “X 에 간다”와 같은 대답이 요구되지 않는다.

6d)는, 의문사에 촛점이 있을 경우,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화자가 청자에게 “X 을 한다”와 같은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반면, ‘하노’에 촛점이 있는 경우는 화자가 “아무 것도 못하겠다”라는 주관적인 판단 아래 사용하는 반문으로 청자에게 “X 을 한다”와 같은 대답이 요구되지 않는다.

6e)는, 의문사에 촛점이 있을 경우,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전제 아래서 화자가 청자에게 “X 하게 한다”와 같은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사용된다. 반면, ‘하노’에 촛점이 있는 경우는 화자가 “아무래도 못하겠다”라는 주관적인 판단 아래 사용하는 반문으로 청자에게 “X 하게 한다”와 같은 대답이 요구되지 않는다.

6f)는, 의문사에 촛점이 있을 경우, 청자가 했거나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서 사용되는 의문문인데, 이 경우 청자는 “X 때문에 한다”와 같은 대답을 해야 한다. 반면, ‘하노’에 촛점이 있을 경우는 화자가 “할 이유가 없다”는 주관적인 판단 아래 사용하는 반문으로 “X 때문에 한다”와 같은 대답이 요구되지 않는다.

6g)는, 의문사에 촛점이 있을 경우,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X(을) 한다”와 같은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반면, ‘하노’에 촛점이 있는 경우는 대개 ‘얼마’가 ‘얼마나’로 실현되는데, 이 경우는 화자가 “얼마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판단 아래 사용하는 반문으로 “X(을) 한다”와 같은 대답이 요구되지 않는다. 위에서, 반문표현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선행된 상황에서 사용된다고 보았다. 반문표현이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선행된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점은 다음 예문에서 밝혀진다.

- 7) a. 누가 갔겠노?
- b. (*)누가 갔노?
- c. 누가 가겠노?

7 b)가 비문인 경우는 반문적 표현으로 사용될 때이다. 그런데 7b)와는 달리 형태소 ‘-겠-’이 결합된 7a)나 7c)는 자연스러운 문법적인 문이다. 여기서, 형태소 ‘-겠-’이 주관적인 판단의 의미로 사용된다¹⁴⁾는 점을 감안하면 반문표현은 화자의 강한 주관적인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과는 달리 종결어미가 ‘-나’로 실현되는 8)의 경우가 있다. 이는 Yes-No Question 과 같은 기능을 한다.

- 8) a. 누가 오나?
- b. 언제 가나?
- c. 어디 가나?
- d. 뭐 하나?
- e. 우예 하나?
- f. 왜 가나?
- g. 얼마 하나?

8)의 경우도 촛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뜻으로 해석된다.

8a)는 촛점이 의문사에 있는 경우에 순수의문문이 되는데, 이 경우 청자는 “그래, X가 온다”나 “아니, 아무도 안온다”와 같은 답을 하게 된다. 반면, ‘오나’에 촛점이 있는 경우는 화자가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판단 아래서 발화한 경우로 반드시 청자의 대답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8b), 8c), 8d)는 쉽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8e), 8f), 8g)의 설명을 위해 행위자를 설정해 보자.

- 8) e' 가가 우예 하나?
- f' 가가 왜 가나?
- g' 가가 얼마 하나?

8e')에서, 촛점이 의문사에 주어지면 8e')는 순수의문문이 된다. 그러나, 촛점이 ‘하나’에 주어지면 8e')는 “가가 아무렇게도 안한다”는 화자의

14) 서정수(1978) 참조.

6 嶺南語文學 (第7輯)

주관적인 판단 아래 사용된 반문이 되어 청자의 답이 요구되지 않는다.

8f')에서, 촛점이 의문사에 주어지면 8f')는 순수의문문이 되어 청자는 “그래, 가가 X 때문에 간다”나 “아니, X 때문에 안간다” 중의 하나로 대답하게 된다. 그러나, 촛점이 ‘가나’에 주어지면 8f')는 “가는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 아래 사용된 반문이 되어 청자의 답이 요구되지 않는다.

8g')에서, 촛점이 의문사에 주어지면 8g')는 순수의문문이 된다. 그러나, 촛점이 ‘하나’에 주어지면 8g')는 “가는 얼마 못할 것이다”라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 아래 사용된 반문이 되어 청자에게 “그래, 가가 X 만큼 한다”나 “아니, 가가 조금도 못한다”라는 대답이 요구되지 않는다.

8)에서 논의된 의문사는 6)의 의문사와 그 기능이 다르다. 6)의 의문사는 청자로부터 의문사에 관한 내용의 답을 듣기 위해 사용되는 데 비해, 8)의 의문사는 순수의문문의 명사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8)에 사용된 의문사가 다음 서술문 9)에 사용된 의문사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는 말이다.

- 9) a. 누군가 온다.
- b. 언젠가 간다.
- c. 어딘가 간다.
- d. 뭔가 하겠다.
- e. 우에라도 한다.
- f. 웬지 갔다.
- g. 얼마라도 한다.

따라서, 8)이나 9)에 사용된 의문사는 의문사로서의 기능을 잃은, 명사로서의 기능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8)이 반문포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10)과 같이 의문사가 후치되는 현상이 가능하다. 이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전체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만큼 강한 경우에 사용된다.¹⁵⁾

15) 10 a)~10 g)의 행위자가 1인칭인 경우에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므로 객관성을 지니게 되어, 주관적 판단은 화용상 전체가 된다.

10) b' 내가 갔나, 언제?

 b' 가가 갔나, 언제?

10b')는 “내가 안갔다”는 의미가 전체되어 있으나 10b'는 “가가 안갔다”는 의미가 꼭 전체된 것은 아니다. 즉 10b')의 경우는 화자가 도르레 “가가 갔다”는

- 10) a. 가나, 누가?
- b. 가나, 언제?
- c. 가나, 어디?
- d. 하나, 뭐?
- e. 하나, 우에?
- f. 가나, 왜?
- g. 하나, 얼마?

10 e)~10 g)는 실제 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으나 10 a)~10 d)는 많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청자에게 화자의 주관적 판단내용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이 지역어의 환기적 용법으로는 다음 11)의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 11) a. 가나, 야?
- b. 가나, 임마?
- c. 가나, 자식아?

11)에서 용언에 후행하는 요소가 호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청자에게 화자가 판단한 사실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11)은 용언에 후행하는 호칭어가 생략되어도 명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10)의 경우에도 연장될 수 있다. 즉 10)의 의문사는 상황에 따라 생략되어도⁶⁾ 명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8 a)~8 g)의 문에 행위자를 설정한 12)의 경우에서도 의문사가 생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a. (누가) 가나?
- b. 가가 (언제) 가나?
- c. 가가 (어디) 가나?
- d. 가가 (뭐) 하나?
- e. 가가 (우에) 하나?

사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체언 및 용언의 명사형 뒤에 나타나는 종결어미 ‘-가’의 경우도 ‘-나’의 경우와 같은 후치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보다 분명한, 용언어간 뒤에 나타나는 ‘-노’와 ‘-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다.

- 16) 의문사가 생략될 수 있는 상황은 discourse 상에서 의문사의 역할이 약화된 경우이다.

f. 가가 (왜) 하나?

g. 가가 (얼마) 하나?

12)에 사용된 의문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12)가 10)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경우이다. 12)에서, 의문사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은 의문사에 축점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0)에서와 같은 의문사 후치현상은 국어가 지닌 표현론의 특징인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순상 문내에서 전치되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후치되어 나타난다”¹⁷⁾는 것을 드러낸 표현방법이라 하겠다. 그런데 예문 6)은 의문사가 ‘왜’나 ‘뭘’ 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문사가 후치되어 실현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왜’나 ‘뭘’를 제외한 의문사는 의문사와 서술어가 공히 문 내에서 근간성분으로 작용해 엄밀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¹⁸⁾을 이루고 있는 결과 의문사에 축점이 주어진 점 때문이다. 종결어미 ‘노’를 취한 의문문에서 의문사 ‘왜’나 ‘뭘’은 후치가 가능한 경우에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6) d' 하노 뭐?

f' 하노 왜?

6d')에 사용된 의문사 ‘뭘’은 ‘무엇’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라는 감정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며, 6f')의 ‘왜’ 또한 감정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 ‘뭘’과 ‘왜’는 6)에 사용된 다른 의문사와는 달리 문(sentence)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뭘’과 ‘왜’는 다음 6d''), 6f'')와 같이 완성된 의문문에 부가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역시 ‘뭘’과 ‘왜’의 기능은 위와 동일하다 하겠다.

6) d'' 어디 가노, 뭐?

f'' 어디 가노, 왜?

이와 같은, 종결어미 ‘노’ 뒤에서의 ‘뭘’나 ‘왜’의 쓰임은 13), 14), 15)에 쓰이는 ‘뭘’나 ‘왜’의 용법이 가능함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의문사의 쓰임이 위와는 달리 완성된 서술문에 부가되는 경우가 있다.

13) a. 내가 한다, 왜?

17) 채완(1976) 참조.

18) 황병순(1979) pp.15-27 참조.

b. 내가 한다, 뭐?

13)의 경우는 의문사에 선행하는 것이 완성된 문이라는 점과 그 문이 의문형 종결어미가 아닌 서술형 종결어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앞에서 논의된 것과는 다르다. 즉 문 13)은 완결된 서술문에 의문사 ‘왜’나 ‘뭐’가 부가되어 의문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 부가의문문의 경우와 같다. 이 점은 이 지역어의 다른 부가의문문과 함께 항목을 달리 해 논의하기로 한다.

Ⅲ. 부가의문(tag-question)¹⁹⁾

국어의 부가의문문에 대한 논의는 최명옥(1980), 성광수(1980)에서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최명옥에서는 부가의문문이 존립하는 데 대해 주로 논의되었고, 성광수에서는, 비교언어학적 견지에서, 부가의문문이 보편성을 지닌 표현법인가의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본고는 이와는 달리 이 지역어가 지닌 부가의문문의 화용론적(pragmatic), 통사론적(syntactic)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이 지역어의 이해와 아울러 이 지역어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찾아보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

경상도 지역어에서는 다음 예문 14)와 같이 부가의문문에 ‘해라’체와 ‘하소’체가 사용되고 있다.

- 14)²⁰⁾ a. 내가 한다, 왜? — ‘해라’체
 a' 내가 하니더, 왜요? — ‘하소’체
 b. 내가 한다. 뭐? — ‘해라’체
 b' 내가 하니더, 뭐요? — ‘하소’체

14)의 의문사 ‘왜’나 ‘뭐’는 단순한 첨사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문사가 다른 의문사와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보면 14)는 “서술문+의문문”으로 된 부가의문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15) a. *철수가 때렸다, 누가?
 b. *내일 간다. 언제?
 c. *서울 간다. 어디?

19) 부가의문문이란 “서술문+의문문”의 구성을 지니면서 청자에게 ‘예’ 또는 ‘아니오’를 요구하지 않는 반문적 의문문을 말한다.

20) 14)의 예문은 안동방언권에서 사용되는 언어다.

- d. 밥 먹었다. 뭐?
- e. *곱게 만들었다. 우예?
- f. 니 때문에 갔다, 왜?
- g. *그만큼 했다, 얼마?

15)에서 15d)와 15f)만 문법적인 문이고 나머지는 비문이다. 그런데, 비문인 15a), 15b), 15c), 15e), 15g)도 의문사를 ‘왜’나 ‘뭐’로 대치하면 문법적인 문이 된다. 15a), 15b), 15c), 15e), 15g)가 비문인 이유는 누가, 언제, 어디, 우예, 얼마라는 의문사가 문 전체와 관련을 맺는 의문사로 쓰는 쓰일 수 없고, 문 내의 어느 한 성분과 관련을 맺는 의문사로 쓰여 “서술문+의문문”²¹⁾으로 된 부가의문문의 부가의문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격문법적 견지에서 볼 때 일문일격(一文一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반면, 15d)와 15f)가 문법적인 문이 되는 것은 ‘왜’나 ‘뭐’가 문 전체와 관련을 맺는 의문사로 하나의 의문문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²²⁾

그럼 14a)와 14b)에 사용된 의문사가 지닌 의미상의 차이와 14a)와 14b)와 같은 표현법이 지닌 공통점을 살펴 보기로 하자.

다음 14a)와 14b)에 대한 해석은 의문사 ‘왜’와 ‘뭐’가 지닌 의미상의 차이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14a)는 “내가 하는 행위를 전후한 상황에 대해 무슨 이유가 있느냐?”라는 뜻으로 사용된 반문이고, 14b)의 의문사는 “내가 하는 행위를 전후한 상황에 무슨 잘못된 점이 있느냐?”라는 뜻으로 사용된 반문이다. 즉 14a)는 의문사에 선행하는 서술문의 진술내용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무슨 원인이 있느냐는 뜻의 반문이고, 14 b)는 의문사에 선행하는 서술문의 진술내용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예상 밖의 결과를 불러 일으킨 것이 있느냐는 뜻의 반문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의문사 ‘왜’나 ‘뭐’가 하나의 의문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뿐만 아니라 14a)나 14b)가 “서술문+의문문”으로 된 부가의문문이라는 것을 보인다 하겠다.

다음으로, 14 a)나 14 b)와 같은 구문이 지닌 공통점은 의문사 ‘왜’나 ‘뭐’가 공히 선행하는 서술문의 진술내용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부가의문으로

21) “서술문+의문문”에서 서술문과 의문문 사이는 폐쇄연점으로 실현된다. 만약 개방연점으로 실현하면, 이 경우엔 부가의문문이 아닌 독립된 두 개의 문이 된다.

22) ‘뭐’와 ‘왜’를 제외한 의문사는 모두 문 내의 어느 한 성분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문사이다.

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 16)의 문은 비문이 될 경우가 있다.

- 16) a(*) 니가 갔다, 왜?
 b(*) 니가 갔다, 뭐?

16)은 문법적인 문인 경우가와 비문인 경우가 있는데, 16)이 문법적인 문인 경우는 16)이 17)과 같은 뜻으로 사용될 때이다(이 경우는 의문사가 상황에 대한 부가의문일 때이다).

- 17) a. 니가 가고 없었다, 왜?
 b. 니가 가고 없었다, 뭐?

그러나, 16)이 행위 자체에 대한 표현일 경우는 비문이다. 그리고, 의문사 ‘왜’나 ‘뭐’가 공히 상황에 대한 부가의문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의문사에 선행할 수 있는 서술문은 의문사가 ‘왜’일 경우가나 ‘뭐’일 경우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즉, 의문사 ‘왜’가 부가될 수 있는 곳이면 의문사 ‘뭐’도 부가될 수 있다.²³⁾

이 지역어가 지닌 가장 두드러진 부가의문문으로는 18)과 같은 표현이 있다.

- 18) a. 니가 갔다, 아이가?²⁴⁾

23) * 문사가 부가의문으로 사용될 때는 세계의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24) 경상북도 지역어 가운데 대구방언권과 경주, 청도 등지에서는 18a)와 같은 형이 사용되나 안동방언권이나 경북 동해안 방언권에서는 “내가 갔잖나?”로 실현된다. “내가 갔잖나?”를 줄기 이전의 어휘로 풀면 “내가 갔지 아니하나?”가 된다. 여기에서 ‘갔지’의 ‘지’가 종결어미라는 점은 최명옥(1980, p.87)에서 밝혀 졌다. 그런데, “나는 가지 않았나”와 같은 문에서 ‘가지’의 ‘-지’도 종결어미인가가 문제가 된다. 필자는 이 경우의 ‘지’는 “내가 갔잖나?”의 ‘-지’와는 달리 종결어미가 아니고 보문자(complementizer)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보문자 ‘-지’는 후행하는 ‘아니하다’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요소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과 이에 선행하는 용언에 시상이 결합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부지역어 “너는 가지 않니?”는 상황에 따라 다른 뜻을 나타내게 된다. 하나는 단순한 보문자를 지닌 문(너는 가지 않는다)의 의문으로서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지’가 종결어미로 사용되는 부가의문문으로서의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않니’에 촛점이 주어지고, 후자의 경우는 ‘가지’에 촛점이 주어진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지’에 선행하는 용언에 시상(aspect)이 결합될 수 없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시상이 결합될 수 있다.

b. 니가 갔다, 그자?

18)에서 부가의문 ‘아이가’ 나 ‘그자’²⁵⁾는 선행하는 서술문이 긍정서술문이 아닌 부정서술문인 경우에도 가능하다.²⁶⁾

18) a’ 니가 안갔다, 아이가?

b’ 니가 안갔다, 그자?

이는 부가의문 ‘아이가’ 나 ‘그자’가 통사적인 면에서 영어의 부가의문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영어의 경우엔 부가의문에 시상이 결합되거나 ‘아이가’ 나 ‘그자’에는 결합되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18)에서 부가의문이 현재형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부가의문이 항상 현재형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아이가’ 나 ‘그자’가 발화시의 화자의 판단과만 관련된 진술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18a’)나 18b’)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부가의문 ‘아이가’는 화자가 청자에게 서술문²⁷⁾의 내용을 주지시켜 이후의 행동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된다.²⁸⁾ 따라서, 이는 서술문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어법이다.

18a’)는 촛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먼저 촛점이 ‘니가’에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청자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갔으니,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²⁹⁾하고,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둘째, 촛점이 ‘안갔다’에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청자가 정해진 어떤 장소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으니,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하고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는

25) ‘그자’는 지역에 따라 ‘그제’ 또는 ‘그지’로 실현되기도 한다.

26) ‘아이가’와 ‘그자’는 ‘안그렇나’에서 분화 발달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고 가정할 경우 선행명제가 부정명제이거나 긍정명제이거나 간에 ‘안그렇나’가 부가될 수 있다면, 이것이 분화 발달된 ‘아이가’나 ‘그자’도 긍정명제와 무관하게 부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부가의문으로 ‘안그렇나’가 사용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상주지역에 ‘은그레’가 있을 뿐이다. 이 점에 대해선 통시적 고찰을 통한 의미분화양상이 밝혀진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27) 부가의문 ‘아이가’에 선행하는 서술문 즉 ‘서술문+의문문’으로 구성된 부가의문에서의 서술문을 가리킨다.

28) 성광수(1980, p.60)에서는 ‘그자’의 용법을 “화자의 단정적인 진술에 대한 확인의 용법”이라 하였다.

29) 화용상의 전제이지 사실의 전제는 아니다.

것을 주장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부가의문 ‘그자’의 용법은 화자가 청자에게 서술문의 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하여 제 3의 청자에게 서술문의 내용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법을 실현하기 위해선 대화의 상대자 외에 제 3의 청자가 한 사람 이상 있어야 한다. 다음 예를 보자.

- 19) 명호 : 범석이 요새 안보이더라.
 원섭 : 범석이 서울 갔다, 그자?
 주길 : 글썸, 서울 간다 하기는하더라.

19)에서 원섭의 이야기는 주길을 직접 상대되는 청자에게 삼아 발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주길에게 동의를 요청해 명호에게 자신의 뜻을 간접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화한 것이다.

부가의문문은 화자 중심의 표현법이다.³⁰⁾ 이는 부가의문이 무엇이든 부가의문에 선행하는 서술문의 내용이 화자의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말한다. 따라서, 서술문이 화자의 판단에 의한 상황에 관한 진술내용이 되면 부가의문문은 모두 문법적인 문이 된다. 예를 들면 “철수느 학교 간다, 그자?”라는 부가의문문은, 부가의문 ‘그자’에 선행하는 서술문 “철수느 학교 간다”가 철수가 학교에 가는 동작에 대한 동의요청으로 사용될 때는 비문이 된다. 왜냐 하면, 현재 진행되는 동작은 같은 자리에 있는 제 3의 청자에게 확인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부가의문 ‘그자’에 선행하는 서술문 “철수느 학교 간다”는 철수가 학교에 가게 되는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진술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성광수(1980, p. 58)에서 비문으로 처리된 다음의 예문 20)도 문법적인 문이 될 수가 있다.

- 20) a. 철수는 아마 내일 올_ 것이다. [아이가?, 그자?]
 b. 나는 철수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이가?, 그자?]

즉 20a)나 20b)도 부가의문에 선행하는 서술문이 화자가 판단한 상황에 관한 진술이면 문법적인 문이 된다.

이 지역어에는 ‘그자’의 용법 가운데 다음 21)과 같은 것이 있다.

30) 성광수(1980) pp.60-61. 참조.

21) 철수가 갔제, 그자?

21)의 ‘그자’는, 위에 논의된 부가의문과는 달리, 의문문에 부가되어 있고 대개 제 3의 청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서술문+의문”으로 된 부가의문문은 화자 중심의 표현법이므로, 서술문이 화자의 판단에 의한 진술내용이었는데, 21)의 경우는 화자의 판단은 없고 단지 청자의 판단을 얻으려고 하는 표현법이다. 이 경우 의문문과 의문문 사이에는 휴지(pause)가 있게 되는데, 이는 21)이 두 개의 문(①철수가 갔제? ②그자?)으로 나누어진 경우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21)이 의문문과 의문문 사이에 휴지(pause)가 없고 제 3의 청자가 있는 상황에서 실현된다면, 선행의문문(①)이 화자의 판단에 의한 진술(→ 21)은 부가의문문과 같은 표현법이 된다. 그러나, 서술문에 의문문이 부가되어 전체가 의문문으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의문문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면, 21)은 부가의문문이 될 수 없다.

부가의문과 유사한 것으로 ‘아있나’³¹⁾가 있다.

22) a. 철수 아있나, 집이 갔데이.

b. 아있나, 철수 집이 갔데이.

22)의 ‘아있나’는 지금까지의 부가의문이 문말에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문두나 문 중에 나타나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부가의문문은 “서술문+의문문”에서 의문문이 선행서술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서 선행서술문의 명제를 확인 또는 동의요청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비해, 22)는 ‘아있나’가 문 내의 어느 성분이나 문 전체를 청자에게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아있나’의 쓰임은 대개 환기하고자 하는 성분 다음에 놓이나, 전체를 환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의 제일 앞에 놓인다. ‘아있나’가 부가의문과 다른 또 하나의 특색은 서술문의 내용이 화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23) a. *철수 집이 간다더라, 아이가?

b. 철수 아있나, 집이 간다더라.

23 a)가 비문인 것은 서술문 “철수 집이 간다더라”가 화자의 판단에 의한 진술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22)과 같은 표현법이 비록 외면상으로는

31) 안동방언권이나 경북 동해안 방언권에선 ‘있잖나’로 실현된다.

의문형인 ‘아있나’가 서술문에 부가되어 있으나, 기능에 있어서는 부가의문법과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Ⅳ. 맺 는 말

본고는 경상도 지역어가 지닌 의문문의 특수성에 관한 고찰이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종결어미가 ‘-노’로 실현되는 것은 촛점이 의문사에 있느냐 용언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촛점이 의문사에 있는 경우는 용언의 내용이 전제된 상황에서 화자가 단지 의문사에 관한 내용을 묻는 경우이다. 반면, 촛점이 용언에 있는 경우는 의문문이 화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아래 사용되는 반문적 표현의미를 지닌다.

종결어미가 ‘-나’로 실현되는 것도 촛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표현의미가 다르다. 촛점이 의문사에 있는 경우는 yes-no question으로의 용법이고, 촛점이 용언에 있는 경우는, ‘-노’의 경우와 같이, 의문문이 화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아래 사용되는 반문적 표현의미를 지닌다. 종결어미가 ‘-나’로 실현되는 의문문이 반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의문사 후치가 가능한데, 이와 같은 표현은 화자의 판단이 전제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만큼 화자로서는 객관성을 지닌 경우에 사용된다. 그리고 의문사를 후치시키는 것이 가능한 의문사가 후치된 문이 의문사에 선행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국어 표현법의 일환이기 때문일 것이다.

의문사 후치현상과 유사한 경우로 서술문에 의문사 ‘왜’나 ‘뭐’가 부가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의 의문사는 여타의 의문사와는 달리 문으로 대체될 수 있었는데, 경상도 지역어에 이와 같은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은 이 지역어에 주관적 표현법인 부가의문법이 발달된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이 지역어의 두드러진 부가의문으로는 ‘아이가’와 ‘그자’가 있다. ‘아이가’는, 서술문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청자와 화자 간에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서술문의 내용을 주지시켜 이후의 행동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그자’는 화자가 청자에게 서술문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제 3의 청자에게 서술문의 내용을 확인시키기 위한 경우에 사용된다. 이는 국어 내의 여타의 지역어에서는 어조에 의해 실현되고 있는 반문표현법이 이 지역어에서는 독자적 통사현상으

로 분화·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 지역어의 특색을 드러 낼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지역사회성과도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³²⁾

이 외에 부가의문과 유사한 것으로 ‘아있나’가 있는데, 이는 부가의문이 문말에 놓이는 것과는 달리 문두(文頭)나 문중(文中)에 놓인다. 그 기능도, 부가의문이 서술문의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과는 달리, 문내(文內)의 어느 성분이나 문 전체를 환기시키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32) 성광수(1980) pp.74-75, 참조.

참 고 논 저

- 강신황(1978), “안동방언의 서술법과 의문법”, 언어학 3.
- 박병수(1974), “Tag Question 제고 : Discourse Analysis 의 한 시도”, 영어영문학, 51~52.
- 서정득(1979), “경남방언의 의문법에 대하여”, 언어 4.2.
- 서정수(1978), “‘크것’에 대하여”, 한글 168 호.
- 성광수(1980), “국어 부가의문에 대하여”, 국어학 6, 국어학회.
- 전상범(1974), “Negative Transportation and Tag Question Formation”, 영어영문학 51-52.
- 채 완(1976), “조사 ‘-는’의 의미”, 국어학 4, 국어학회.
- 천시권(1975), “경북방언의 의문철사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7.
- 최명옥(1976), “현대국어의 의문법연구 —서남경남 방언을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 15.
- _____ (1980), 경북 동해안 방언연구 —영덕군 영해면을 중심으로—, 영남대 출판부
- 홍사만(1979), “[전제]에 대한 일 고찰”, 여천 서병국 박사 화갑 기념논문집, 대구 : 형설출판사.
- 황병순(1979), 국어 조동사 연구, 영남대 대학원논문.
- Fillmore, C. J. (1968), *The case for case*, Bach & Harms, eds.
- Katz, Jerrold J. (1977), *Propositional Structure and Illocutionary force*, Thomas Y. Crowell Company Inc.
- Lakoff, G. (1971), “The Role of Deduction in Grammar”, In Fillmore and Langendoen, eds.
- Wilson, D. (1975), *Presuppositions and Non-Truth-Conditional Semantics*, London: Academic press.